

우연

맨홀에 빠졌다. 어떻게, 왜 빠졌는지는 당시 술에 잔뜩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내가 그날 맨홀에 빠져야겠다는 특별한 계획 따위를 세우지 않은 것이 확실했다. 그렇다고 평소 맨홀에 빠져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러니까 맨홀에 빠지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는 말이다. 우연이었다.

다리 여기저기 멍 자국들이 붉게 물들었고 깊게 패인 상처에서 피가 줄줄 흘렀다. 쓰러린 고통과 함께 치료를 위해 삼 주 가까이 병원을 꼬박 다녔다. 내 몸과 삶에 선명하게 그어진 이 사건에서, 나는 왜 맨홀에 빠졌는가에 대한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나 해명을 찾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서럽고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한치 앞도 못 보고 발을 잘못 디딘 찰나의 오판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하필 거기에 있었던 맨홀의 위치, 아니면 평소에는 당연하게 피해 다녔을 맨홀을 분간하지 못하게 한 음주상태, 아니면 나는 왜 맨홀이 무방비하게 놓여진 동네에 가게 되었는가 등 온갖 원인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어떠한 목적이 있는 필연적 동기는 없었다. 명백하고 알려진 결과에 대한 우리도 모르는 드러나지 않은 원인이 바로 우연이라고 볼테르의 말했는데, 마땅히 건강하게 생존해야 한다는 자연법칙을 거스르며 기존 사회과학 이론에서도 결코 쉽게 설명해줄 수 없는, 서울에 사는 서른 살 여성이 왜 맨홀에 빠지고자 했는가에 대한, 심지어 나 스스로에게도 설명할 수 없게끔 예측 없이 놀래키며 우연이 찾아온 것이다.

그렇다. 이유를 찾는 변명에 실패한 나는 썩새게 우연을 운명으로 전환해본다. 이제 서른 살이 되었으니 신이 나에게 술 좀 작작 마시고 정신 차리라는 계시로. 그러나 이 사건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 같은 특별한 기적이 되거나 나의 음주양식이 바뀐다는 삶의 전환점이 되지는 못했다. 여전히 나는 술을 작작 마셔대고 있다. 그냥 허무하게 우연이라는 사건에 당한 것이다. 자연과학, 수학, 통계 등 각종 학문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연을 계량해보고 통제해보려고도 하지만, 우연은 그냥 불쑥 드러나 항상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냥 짝은 로또 번호로 뜬금없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뜻밖의 사고로 인해 불행을 겪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우연은 경미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대단한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다면 차라리 어떠한 우연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집

밖에도 나오지 않는, 운명의 여신이 굴리는 수레바퀴에 상처받지 않는 안전빵은 어떤가. 어떠한 비합리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세계의 궤도에서 벗어나, 태어나서 온전히 자연스럽게 죽는 절대자가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간단한 목적만 실천하는 것이다. 선택의 조건들을 차단시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의 가능성을 스스로 몰살시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이 인간의 행동 중 반을 관장한다는 것이 진실이기는 하지만 자유 의지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나머지 반만큼은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했다. 실제로 우리는 각자-결코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신이 나를 따뜻하게 품어줄지 아니면 가혹한 벌을 내릴지 심지어 번덕스러울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연은 오히려 나의 행동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실제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연들을 이용하여 운명에게 대담하게 맞서 각자의 목적을 향한 선택의 결과로, 필연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연은 결코 필연성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우연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여지, 의지도 사라진다. 나도 맨홀에 빠짐으로써 이제 금주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당위성(필연)과 선택의 기회(의지)에 맞닥뜨렸다.

그러나 나는 금주를 행동에 옮기는 대신 액땀했다고 여겼다. 내가 지금 당장 금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인과성도 없었다. 그러나 논리와 이성의 영역에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한쪽에 남겨진 우연은, 무의식적으로 놀랄 만큼 이성적인 사고 체계에 의해서 다시 필연적인 목적성을 가지도록 조종된다. 이성 대신 감정을 이용해서. 기원되고 기도된 것으로 탈바꿈시킨다. 맨홀에 빠졌다는 그저 일어나버린 사건을 의미의 세계로 건져내어 해결하기 위해, 나중에 다가올 더 큰 액을 막기를 바란다는 나의 바람과 의도를 보태어, 우연을 미신으로 둔갑시켰다. 옷을 던지기 전에 침을 뱉뱌 뺏어 본다거나 복권 당첨을 위해 명당에 자리 잡았다는 특정 점포를 굳이 찾아가고, 또는 웬만한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징크스 같은 것들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요구되는 자질구레하고 간절한 목적성과는 달리 우연은 이와 무심하게 일어난다. 나의 경우 액땀은 커녕 얼마안가 엮힌 데 덮쳐 삼각대에 손까지 찢겼다. 누군가가 대단한 미신적 신앙으로 인해 복권에 당첨되거나 거대한 액막이를 했다 쳐도 자연 전체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실 세계는 우리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절실함과 무관하게 어떤 필연성이 부재된 채, 우연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냥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연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보통 인류의 오랜 역사와 전통, 관습적 사고를 물려받아 우연을 미신으로 치부하거나 신의 섭리로 이해한다.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경멸하기도 한다.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라고 오해받는 기린의 목이 우연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던져주는데, 라마르크는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기 위해 자꾸만 목을 길게 뻗을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부모의 형질이 자식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반대로

다윈은 이러한 특정 환경에 처해있었던 기린들 중에, ‘우연히’ 긴 목을 가지고 태어난 기린들이 더 유리했기 때문에 더 빨리 번식하고 진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오히려 목적성이 없는 세계에서 우연은 엉겁결에 새로운 질서나 형태를 만들어내는 진화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들은 인간의 탄생을 다윈이 주장한 오랜 ‘자연선택’의 우연한 과정에 의해, 그리고 정자와 난자의 결정적인 우연의 수정과정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학교에서 배운다. 우연을 거치지 않고 태어난 인간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우연은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따르는데,

첫째 우연은 이미 지각된 것이어야 한다. 주사위를 던진다면 1부터 6사이의 숫자가 나와야 한다. 그 외의 숫자가 나온다면 그 주사위는 불량품이다. 로또를 샀는데 46번이 등장한다면, 아무리 다른 번호가 맞다한들 말짱 꽁이다. 내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우연이 성립된다.

둘째로는 우연은 순간적인 침묵을 동반한다. 우연히 어떤 사람을 길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짧은 정적과 함께 ‘음... 아... 반갑다!’로 이어진다. 주사위를 던져서 받아들이게 될 결과는 기껏해야 여섯 가지 중의 하나이지만, 막상 우리는 결과를 확인하는 데 버퍼링을 소요한다. 우연을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자극을 감각하고, 감각을 통하여 지각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서로를 기만하기도 하고 우리를 배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면, 어느새 우리는 눈으로 진짜 보는 것보다 우리의 뇌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감각의 경험이 충분히 쌓인 어른들은 어느새 감각하는 대신 지각으로만 선불리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연은 이러한 자극-감각-지각하는 과정을 교란시킨다. 이미 지각하고 있던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의 자극으로 인해 새로운 감각의 상태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감각과 지각 과정을 흘뜨려놓고 다시 재정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연이 주는 순간은 그토록 놀랍고 새롭고 야릇하기까지 할 수 있다. 우연히 만난 여자가 갑자기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처에 있는 맨홀들을 전과 다르게 유심히 노려보고 다니기도 한다. 다시 새로운 지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 교육을 잘 받은 합리적인 우리들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이 우연들을 해결하려고 도로 신이나 미신에게 봉헌하지만.

어쨌든 우연에 대한 이 글을 써야겠다고 우연히 마음먹게 된 것은 앞서 말한, 맨홀에 빠진 우연 때문인 것이었다.

